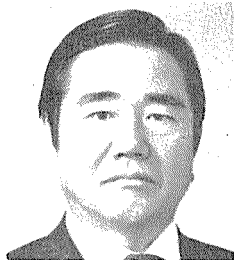


電子部品 産業의 育成發展 提案



朴 正 源
(株) 韓國아벨 社長

우리나라의 전자공업은 1962년 수출전략산업으로 지정된 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높은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심각한 문제이다. 그 해결책으로는 정책자원에서의 장기적 단계적 육성지원, 적극적인 자금지원, 부품 및 소재의 완전국산화, 그리고 업체간의 전문계열화를 통한 관민일체의 노력만이 관건이라 하겠다.

I. 電子部品産業의 現況

1. 現 況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은 1962~1966年間的 第 1次 經濟開發 五個年計劃에서 輸出戰略産業으로 指定되어 政府가 育成할 主要한 産業으로 脚光을 받게 되었다.

그뒤 1969年 1月에 電子工業振興法이 制定 公布되고 이어 電子工業振興 基本計劃이 第 1次(1969~1976), 第 2次(1974~1981), 第 3次(1976年 改定 發表), 第 4次(1981年 改定 發表)로 발표되어 政府와 有関機關의 특별한 관심아래 育成되어 왔다.

表 電子部品 輸入 現況 單位：百萬弗

區 分	電子部品 全体	對日 電子部品	構成比
'83	1,695	826	48.7
'84	2,097	1,042	49.7
'85	1,920	1,017	53

그러나 別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電子部品の 輸入 依存度는 과거 20余年間的 政府와 民間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深刻한 問題로 남아 있다.

電子部品の 輸入依存 결과로는 우리가 경험한 비참한 實例로서 1980年代初에 倒産한 小型 電子計算器 生産業체를 알고 있다.

이 小型 電子計算器 生産業체는 國際市場에서 外國의 기존 競爭相對를 위협하게 되자 競爭相對의 策動으로 電子計算器의 核心部品인 IC 칩의 輸入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部品の 輸入依存은 궁극적으로는 競爭相對로부터 供給防害, 供給中斷의 最後 手段으로 이 용당하게 되어 國際競爭에 있어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國際競爭은 언제나 公正性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나라 電子産業이 國際競爭에서 안고 있는 決定的인 취약점의 하나이다.

특히 各國의 輸入 規制에서 韓國이 警戒 대



석유나 식량만이 무기가 아니라 부품·소재도 무기가 될 수 있다.

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극복하고 피하는 方法으로서 최근에 특히 素材部品産業을 育成 支援하고 있으나 口号와는 달리 실효를 거두기에는 미흡한 点이 많은 것 같다.

20余年間 電子部品 生産에 종사하는 동안에 경험한 것으로서 家電製品 部品生産市場은 日本이 완전히 전세계를 휩쓸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른 나라의 競争業體를 도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69年 台灣에 있는 美国의 G.I.社의 工場을 방문하였을 때만 해도 그 会社에서는 IFT를 大量으로 生産하고 있었으나 그뒤 生産을 中斷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IFT 國際市場은 日本의 3社가 완전 장악하여 유럽이나 美国의 需要者가 이 部品을 조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1975年 프랑스의 한 蓄電器 生産工場을 방문하였는데 이 工場도 거의 廢業 단계에 있었고 서독과 이탈리아의 可變蓄電器工場을 방문하였을 때도 거의 開店 休業狀態로서 自國內의 市場에서도 日本製品에 밀려 市場을 상실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Philips도 可變蓄電器 生産은 印度에 있는 工場에서 少量을 生産하고 있을 뿐이다.

2. 部品業界의 어려움

部品은 國産化를 통한 輸入代替가 이루어져

야 한다.

外貨節約을 위하여, 輸出增大를 위하여가 아니라 生存을 위하여 素材와 部品은 國産化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電子工業의 當면한 至上課題이다.

그러나 우리 業界가 當면한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첫째, 우리나라의 電子業界는 部品뿐 아니라 全業界가 영세하고 허약하다.

우리나라 電子産業은 始發부터 市場의 需要에 맞추어서 自生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政府의 輸出指向 政策의 주요한 한 手段으로써 創設 育成되어 왔다. 따라서 國內市場은 없는데 처음부터 國際市場을 목표로 輸出增大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國內市場에는 맞지 않는 과대한 규모로 시작했다.

둘째, 技術도 資本도 市場도 없이 시작했다. 技術은 外國에서 導入하고 資本은 金融機關에서 빌리고 海外市場은 技術 導入先이나 外國商人에게 맡겼다.

이상과 같은 사정은 部品業體나 Set 業體 모두 공통된 실정이었다.

세째, 部品の 開發에는 技術과 時間과 資金이 필요하다.

部品開發의 技術은 그 着想이 Set生産業體에서 Set 設計 改善上 필요에 따라 發生하는 경우

가 많고 그것을 現實的으로 製作하는 데는 部品·Set 兩業體 技術者가 合作해야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Set 業體는 自社의 開發品인 自社 브랜드 作品이 아직은 드물다.

따라서 部品業體 技術者를 指導하고 協助하여 共同 開發할 여지가 없는 것이 실정이다.

네째, 部品生産業體는 허약하고 영세하다.

따라서 部品를 開發하는 데 所要되는 資金과 時間을 가질 여유가 없다.

資金과 時間을 投入하여 開發에 성공하면 으레 지금까지 供給하고 있던 外國業體는 半값으로 덤핑을 해온다.

따라서 千辛萬苦 끝에 開發에 성공해도 企業 운영에 도움이 안된다.

이 점이 바로 育成機關이 着眼하여야 할 점이다.

II. 育成 施策 方向

85年, 86年에 들어서면서 世界各國의 輸入 規制 등에 대비하고 産業基盤을 確固히 하기 위하여 素材部品の 國產化와 中小企業의 育成에 政府의 支援施策이 集中되고 있다.

資金面에서도 각종 政策資金을 準備하여 部品産業 育成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一貫性있고 통일된 計劃 아래 효과가 있는 시책이 필요한 것이다.

1. 政策

첫째, 무엇을 어떻게 支援하느냐? 하는 緩急을 가려서 통일된 계획 아래 우선 順位와 長期의인 단계적 育成策을 決定하지 못하고 個別企業의 착상에 따라 散發的으로 支援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전체를 統制下에 두고 필요한 部門에 균형있는 發展을 할 수 있도록 規制하여야 短時日內에 낭비없이 發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技術

둘째는 技術開發 部門의 支援에 관해서 政府의 여러 技術 研究機關이 있으나 尖端分野의 技

術開發에 치우쳐 있지않느냐 하는 疑問이다.

尖端技術 分野의 開發은 물론, 國家로서 절대 필요하지만 電子工業의 기초가 되는 家電製品의 所要部品도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밑바닥 部門의 國產化가 전체 電子工業의 發展의 기초가 되는 만큼 하루빨리 이 部門의 部品 完全國產化와 素材의 國產化가 시급한 문제이다.

3. 資金

세째는 資金 支援問題로서 현재 많은 資金을 준비하고 貸出을 하고 있으나 개발에 소요되는 期間이 長期임을 고려할 때 또 대부분의 部品業體가 中小企業임을 감안할 때 開發 支援資金은 据置 期間이 있는 資金이라야 하는 것이다.

이 開發 資金의 融資 對象을 결정하는 事務가 金融機關의 일상적인 審査基準으로 한다면 融資 決定을 내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技術官署나 政策官署의 判斷推薦을 근거로 하여 融資가 결정될 수 있도록 金融政策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특히 素材産業에 關해서 提案하고 싶은 점은 電子産業에 필요한 素材는 規格이 精密하고 量이 少量이어서 일반 기업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市場이 狹小하고 企業의 규모가 영세하므로 特殊規格品の 少量生産은 일반적인 計算으로서의 取支맞는 事業이 아님은 明白하다.

그러나, 素材의 自給度 향상과 素材의 開發은 곧 經濟戰爭의 死活을 決定할 關鍵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本人의 생각으로는 한 나라의 人口가 5,000萬이 넘는 규모이면 經濟的으로도 他國에 의존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大韓民國도 이에 속한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政府에서도 막대한 支援資金을 投入하여 半導體産業을 育成하고 있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노력을 一般 素材産業에도 傾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石油만이 武器化되는 것도 아니요 食糧만이 武器化되는 것이 아니라 素材 部品 역시 武器化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